



제86회 춘향제가 13일부터 16일까지 '춘향! 깨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남원의 관광투어와 요천 일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국에서 찾아온 연인,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쫓달아들고 있다.

춘향제 축제장 '들썩들썩'

'이판사판 춤판' 등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행사 관광객 발길 몰려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제인 '제86회 춘향제'가 13일부터 16일까지 '춘향! 깨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남원의 관광투어와 요천 일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국에서 찾아온 연인,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쫓달아들고 있다.

춘향제 축제의 셋째날인 15일은 춘향극악대전, 판소리 춘향가 완창, 여성국극, 연희마당, 성악·오케스트라, 심야콘서트, 길놀이 출정연, 지금은 춘향시대, 사랑제일마당, 농경문화체험, 사진촬영대회, 방자프린지마당 등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펼쳐졌다.

15일 진행된 다양한 행사중 가장 큰 인기몰이를 했던 행사는 단연, 「사랑

을 위한 길놀이 출정연 '이판사판 춤판'이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50개팀 2,700명의 춤꾼들이 14일과 15일 이틀 간에 나누어 주·야간 화려한 춤판을 벌이는 행사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관광투어 길놀이 광장에서 전국에서 참가한 춤꾼들의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출정연이 펼쳐져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신명난 춤판이 되었다.

출정연이 벌어진 관광투어길 놀이 광장의 객석은 인파로 가득차며 길놀이 광장 주변의 관광객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특히, 춘향제 본연의 전통공연예술 축제로 승화하기 위해 관광투어 실경 무대를 배경으로 한 '세기의 사랑 공

연 예술제'는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인기를 얻으며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추억을 선사했다.

이 밖에도 민속씨름대회, 춘향극악대전, 춘향그네대회, 연희마당, 중국악성시 예술단, 러시아브란스크시립민족오케스트라, 여성국극 '大' 춘향전, 등 다채로운 행사와 공연이 진행되었다.

축제의 마지막날인 16일에는 춘향사랑그림그리기대회, 연희마당, 춘향사랑 백일장대회, 남원농악, 퓨전국악 '헤이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관광객들을 맞을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역할 '톡톡'

농번기 인력난 해소 큰 도움

임실군이 순창군·남원시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가 영농철 부족한 농업인력을 공급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효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 농번기 영농철을 맞아 배·사과 수확, 복숭아 적과, 토마토, 감자 및 고구마 파종 등 농작업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100여명의 도시 및 관내 유흥인력을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해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사)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임실·순창·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행복생활권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17년까지 15억8,100만원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연간 7,700여명의 농업인력을 공급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초기 농작업이 서툴러 인력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1년 동안 숙련된 인력이 증가해 구인능력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5월 현재 4,700여명의 농작업자를 공급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또한, 인력과 구직농가를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1일 8시간 기준 5만원의 인건비와 종식을 제공하고 농작업자의 인건교육, 단체 상해보험 가입, 교통비 지급 등 수송 대책과 원거리 구직자를 위한 숙박시설도 별도 운영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농업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의 유흥인력을 농가와 연계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시범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 지원 사업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642-0192) 또는 홈페이지 (http://www.agriwork.kr/inswork)를 이용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한·중 양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인 남원시와 중국 염성시가 자매도시로서의 인연을 맺은 지 20주년을 맞이하여 5월 13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고 제86회 춘향제 축하를 겸해 추의실 염성부시장을 비롯한 공연단 등 염성시 관계자 20여명이 남원시를 방문해 양 도시의 우호 증진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양 도시가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교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더



고창 선운사 '부처님 오신날' 행사

14일 봉축 법요식 등 거행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풍요로운 세상, 자비로운 마음이 온 누리에 퍼지길 기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 주관으로 지난 14일 선운사 대웅보전에 서 거행된 봉축 법요식은 박우정 고창군수, 이상호 군의장, 유성열 국회의원,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 관광객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봉축 법요식은 육법공양,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관불 및 헌화,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

경우 주지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인류와 민족의 번영, 남북의 화해와 평화 공존,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웃과 함께 하는 동체대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부처님 이다"라며 "절망은 희망으로, 갈등은 화합으로, 불신은 믿음으로 만들어가길 염원하면서 부처님 날을 맞아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

임실군은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질을 가정에서 확인하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한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신성한 가구를 대상으로 수질분석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탁도와 철, 구리, 수소가 온 농도, 잔류염소 5개 항목에 대한 1차 검사를 실시해 신뢰도를 높인다.

또한,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대장균 등 1차 항목을 포함한 12개 항목 재검사를 통해 20일 이내 물사랑 홈페이지 및 우편을 통해 공지한다.

군 관계자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많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엄격한 수질기준 및 철저한 수질관리로 노력할 것"이라며 "가정에 제공되는 수돗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막연한 불안감 해소 및 신뢰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은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 또는 군 상하수도사업소(☎640-2233)에 직접 전화 신청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중국 염성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기념식수 등

한·중 양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인 남원시와 중국 염성시가 자매도시로서의 인연을 맺은 지 20주년을 맞이하여 5월 13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고 제86회 춘향제 축하를 겸해 추의실 염성부시장을 비롯한 공연단 등 염성시 관계자 20여명이 남원시를 방문해 양 도시의 우호 증진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양 도시가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교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더



육 김빌하고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화하나무 기념 식수 행사를 가졌다.

또한, 남원시와 염성시를 대표하여이 난초 명칭의 춘향가와 비호연, 왕부의 굽이굽이 흐르는 강의 열창으로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식정동 경지정리 사업비 확보

남원시는 식정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식정지구 대구회 경지정리 사업비를 확보하여 올해 6월말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대구회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한 도로나 용·배수로가 미비한 형태 논배미를 표준화하여 분산된 형태의 농경지를 소유자별로 집단화하여 각종 영농장비의 출입, 농약·비료·퇴비·농산물 등 영농자재의 운반, 관개 및 배수 등 용수관리와 기타 영농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데 있다.

식정지구는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농경지 60ha를 대상으로 총29억원(국비15억, 도비12억, 시비12억) 투입하여 금년도 6월말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대구회 경지정리 사업이 마무리되면 농로 개설로 영농자재와 농산물의 운반이 쉽고 용·배수로 시설개선으로 체계적 용수관리의 편리와, 분산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한곳으로 모아 농경지 집단화에 따른 농업경영의 합리화 등 토지이용률이 높아져 농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 대산면 천연기념물 이팝나무 만개

오랜 세월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으며 천연기념물 제183호로 지정된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목교마을의 이팝나무가 올해도 하얀 꽃이 만개해 지나는 이의 눈길을 붙잡는다.

이팝나무는 나무 전체에 뒤덮인 하얀 꽃이 마치 쌀밥 모양과 비슷해 꽃이 많이 피는 여부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치기도 했으며 여름이 시작될 때인 입하 즈음에 꽃이

피어 입하목(夏木)으로 불리웠다.

특히, 대산면 중산리 이팝나무는 수령 약 250년 정도에 높이 10.5m, 둘레 2.68m로 이팝나무로서는 매우 크고 오래된 노거수면서 생물학적 보존 가치가 커 군과 국립산림과학원, 문화재청에서 노거수(老巨樹) 유전자원의 영구 보존을 위해 유전자은행을 통한 복제나무 육성에 나서기도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평통, 통일시대 시민교실 개최

임실군은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오는 19일 개최한다.

이번 시민 교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회장 김인기) 주최로 심민 군수, 자문위원,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와 올바른 통일 안보의식을 논의하고, 김정원 새터민 초빙 강사가 '최근 북한 실상과 통일의 필요성'을 주제로 약 1시간에 걸친 강의를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요즘 북한이 핵 보유 의지를 표명하는 등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연일 일삼고 있다"며 "이번 시민교실을 통해 우리의 올바른 안보의식 정립과 북한의 정확한 실상 파악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는 김인기 협의회장을 포함한 42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통일역량강화 순회교육, 청소년 통일공감 체험학습 등을 추진해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에도 헌신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구독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